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출장보고서

송 지 형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1. 출장개요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김현준 외 2명(수서정리과 박정주, 정보관리과 조교 송지형; 이하 출장팀)은 2010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규슈대학(九州大學)부속도서관을 둘러 보았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은 후쿠오카(福岡) 시내의 하코자키(箱崎)캠퍼스에 위치한 중앙도서관과 4개 분관 - 병원캠퍼스의 의학분관, 오하시(大橋)캠퍼스의 예술공학분관, 쓰쿠시(筑紫)캠퍼스의 쓰쿠시분관, 이토캠퍼스의 이토(伊都)도서관 - 및 부설기록자료관(하코자키캠퍼스에 위치)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롯폰마쓰(六本松)분관은 2009년 2월 폐관하였으며, 소장 자료는 모두 이토도서관으로 이전하였다. 출장팀은 출장기간 동안 규슈대학 내 여러 도서관 가운데 중앙도서관과 부설기록자료관, 이토캠퍼스의 이토도서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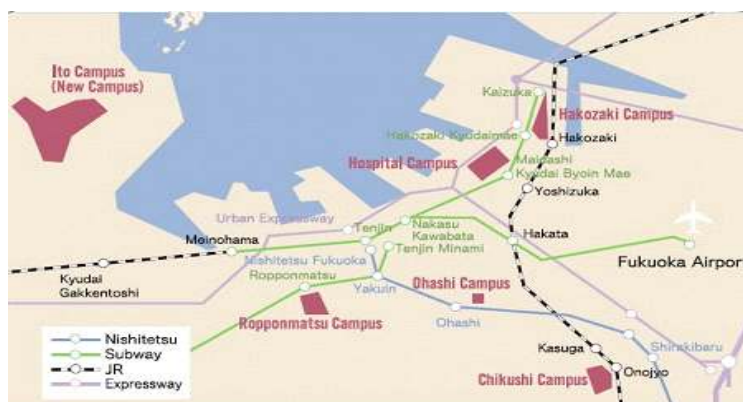


그림 1. 규슈대학 캠퍼스

* 이토도서관은 특히 자동서고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이토도서관과 자동서고에 대해서는 九州大學附屬図書館 編, 『きゅうと Newsletter』, vol. 4, no. 3, 2009. 10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CuteNL_4_3.pdf) 을 참조.

2. 규슈대학부속도서관에 대하여

(1) 연혁

규슈대학의 역사는 1867년 당시 후쿠오카 지역을 통치하던 구로다번(黒田藩)의 번교(藩校)로 찬생관(贊生館)이라는 의학교육을 담당하던 학교를 텐진(天神) 지역에 설립한 데서 시작한다. 이후 얼마못가 학교는 폐교되었지만 부속병원만은 계속 유지되어 오다, 1900년에 병원(당시는 후쿠오카현립 후쿠오카병원)을 모체로 하여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의 분과대학으로 후쿠오카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후쿠오카 의과대학은 1911년에 규슈제국대학으로 이관된다.) 한편 1900년 의회에서는 「규슈·도호쿠 제국대학 설치건의안(九州東北帝國大學設置建議案)」이 통과되었지만 이후 예산 문제로 계속 제국대학 설립이 지연되어 오다 1911년에야 비로소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이 설립되었다.* 이런 연유로 찬생관이 설립한 1867년은 규슈대학의 창립년이지만, 동시에 대학설치년은 규슈제국대학으로 독립한 1911년이다. 실제로 규슈대학은 2011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은 1922년 규슈제국대학부속도서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47년에 현재의 규슈대학부속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1947년에는 의학도서관, 1959년에는 롯폰마쓰도서관, 2000년에는 쓰쿠시도서관, 2003년에는 예술공업도서관(규슈대학과 규슈예술공과대학이 통합)을 설립하였다. 2005년에는 이토지구의 새 캠퍼스에 이계(理系)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이계도서관은 2009년에 다시 이토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2) 기본 통계 비교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주요 일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일반 현황

장서수 (2010. 3. 31 현재)	
소장책수	4,016,028책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	92,741종

* 이상은 <http://ja.wikipedia.org/wiki/%E4%B9%9D%E5%B7%9E%E5%A4%A7%E5%AD%A6>을 참조.

** 이상은 http://www.lib.kyushu-u.ac.jp/overview/item_185.html을 참조.

*** 九州大學附屬図書館 編, 『九州大學附屬図書館年報 2009/2010』, 2010. 5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nenpo2009-2010.pdf>), pp. 17~18을 참조.

전자저널 (2010. 5. 1 현재)	
열람가능 전자저널수	48,325종 (무료 저널 포함)
계약 타이틀 수	31,478종
2009년도 수입통계	
도서수입	52,635책
연속간행물(인쇄자료만)	15,991종
2009년도 자료구입비	
단행본	1,252,630,000 ¥
연속간행물	492,688,000 ¥
전자저널	205,405,000 ¥
기타	537,955,000 ¥
	16,582,000 ¥
직원수 (2010. 4. 1 현재)	
사무부장	127명
과장	1명
과장보좌	3명
도서관전문원	1명
계장/전문직원	4명
계원 등	23명
	95명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장서수는 대체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과 유사한 반면,* 연속간행물의 종수(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포함)는 서울대보다 나은 수준이다.** 연간 자료구입비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160억 정도이며,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2010년도 예산과 비슷하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료구입비에서 실물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경우 2009년도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전자저널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

* 2010년 11월 30일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도서 책수 3,374,262책; 규장각과 학과 및 연구소를 포함하면 4,179,631책이다.

<http://lib.snu.ac.kr/PageView?LibraryStatistics1&LibraryStatistics>를 참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인쇄자료의 종수는 6,946종(신문 포함), 전자저널은 28,312종이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편, 『도서관보』, 제132호, 서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2010. 2, pp. 161~162.

중이 약 43%이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전자저널 관련 지출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으며 다만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구분할 뿐이어서 단순 비교는 곤란하나, 2009년 자료구입비 가운데 연속간행물은 예산의 75.6%, 집행액의 73.4%에 해당하며,* 연속간행물 관련 예산의 상당액은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임대(lease)'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가정해 볼 때, 실물자료에 대한 지출이 규슈대학부속도서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전자자료에 대한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이긴 하나 휘발성 예산임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으로 실물자료에 대한 지출에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해 보인다.

(3) 규슈대학 캠퍼스 이전과 신도서관 계획

규슈대학은 후쿠오카 시내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캠퍼스를 이토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규슈대학부속도서관 또한 2003년 7월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을 위한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이전계획』(일종의 마스터플랜에 해당)을 수립하고, 도서관 이전을 준비해오고 있다. 현재 이토지구에는 기존의 이계도서관과 롯폰마쓰 분관만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중앙도서관도 이토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이토캠퍼스 신도서관 계획의 개요와 경위, 신도서관 관련 각종 계획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학내 공개이긴 하나 회의록도 공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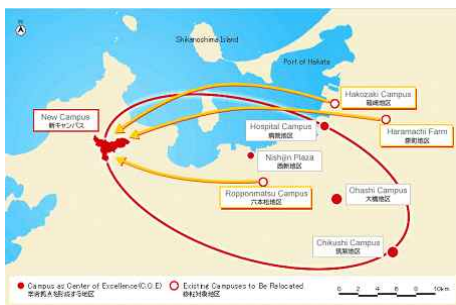


그림 2. 캠퍼스 이전 계획 개념도



그림 3. 이토캠퍼스 배치 계획

(4) 연구개발실에 대하여

규슈대학부속도서관과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조직을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연구개발실의 존재이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연구개발실은 주로 도서관의 현안이나 발전방향에 관한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편, 『도서관보』, 제132호, p. 165.

**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신도서관 계획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어 향후 우리 도서관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 하다. <http://www.lib.kyushu-u.ac.jp/newlib>를 참조.

연구를 추진하는데, 연구개발실 소속의 교원이나 연구원, 혹은 겸임교수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는 직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은 별도의 고서를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의 보존이나 디지털 콘텐츠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교수나 연구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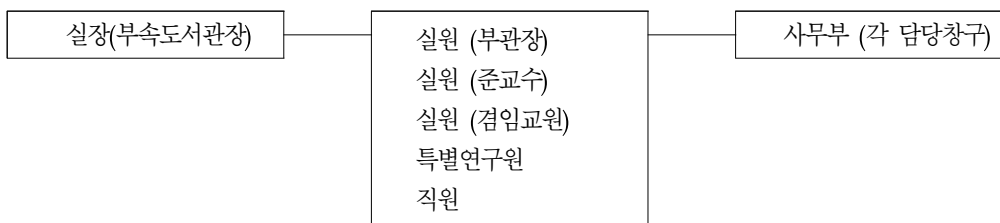
1) 설치목적

연구개발실은 대학 내 학술정보의 수집·가공·축적·제공 및 기타 도서관이 담당하는 교육연구지원 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가운데 부속도서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고도의 도서관 서비스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

부관장을 비롯한 교수와 연구원(이하 실원)이 연구개발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2008년도에는 18명, 2009년도에는 19명의 실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실원만으로 프로젝트 팀을 꾸리는 경우, 실원 다수에 직원이 업무 지원을 하는 경우, 실원 1~2명에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표 2> 연구개발실 조직도



3) 연구개발실 주요 연구개발 사항

연구개발실의 주요 연구개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2009년도 연구개발실 주요 연구개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면 관계상 연구책임자가 2인 이상의 공동 연구는 연구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① 장래 계획 관련 분야

***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조직도는 http://www.lib.kyushu-u.ac.jp/overview/item_186.html을 참조.

*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연구개발실에 대해서는 九州大學附屬図書館研究開発室 編, 『九州大學附屬図書館研究開発室年報 2008/2009』, 福岡: 九州大學附屬図書館, 2009. 7을 참조.

** http://www.lib.kyushu-u.ac.jp/rd/rd_2009을 참조.

- 통합이전 후 신도서관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 해외 대학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松原孝俊 한국연구센터 교수)
- 도서관직원 전문성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竹村則行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 학습·교육활동과의 연계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吉田素文 부속도서관부장 · 의학연구원교수)

② 전자도서관시스템 관련 분야

- 학술정보 리포지토리에 관한 연구개발
- 교원·학생의 커뮤니티와 콘텐츠 형성에 관한 연구
- RFID를 활용한 도서관 시스템에 관한 연구

③ 콘텐츠 형성·발신(発信) 관련 분야

-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黒澤節男 부속도서관연구개발 실험특별연구원)
- 귀중자료 이미지 및 서지 DB 작성에 관한 조사연구
- 자료보존에 관한 조사연구

(5)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소장 주요 컬렉션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분관에 귀중서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다. 컬렉션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개인문고’와 유사한 개념이나, 장서수가 중요한 설치 기준은 아니며 중요도에 따라서 일반 서가에 혼합 배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에서 소장중인 대표적인 컬렉션으로는 파라(ペラ)문고*, 쿤켈(クンケル)문고** 등이 있다. 현재 95개의 컬렉션이 등록되어 있다.***

* La Collection de Charles Perrat. 프랑스국립고문서학교 교수(중세사 전공) Charles Perrat(1899-1976)가 소장하던 장서이다. 1979년 문부성으로부터 공동이용외국학술도서구입비를 배분받아 암스테르담 Dekker & Nordemann BV에서 63,650,000엔을 주고 구입했다. 서양중세사의 역사보조학, 특히 고서체학과 서양법제사, 지방사 관련 자료들로 도서 2,611책, 제본잡지 132책, 미제본잡지 431책 등 모두 3,916책이다.

** 뮌헨대학 법학부에 재직했던 고(故) Wolfgang Kunkel 교수의 장서이다. 로마의 사법(私法)·공법, 로마사, 그리스사, 파피루스학 및 독일법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단행본 약 3,000책, 잡지·및 정기간행물 약 1,300책 등 4,800책이다. 고도프레도(Godfrey) 판 『로마법대전』(1688) 등이 유명하다.

*** <http://www.lib.kyushu-u.ac.jp/collections>을 참조. 구체적인 컬렉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컬렉션 작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는데, 주요 디지털컬렉션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슈대학귀중서화상 DB: 귀중자료 열람*
- ② 일본고전적화상 DB: 고전문학 연구**
- ③ 규슈대학소장컬렉션목록 DB: 문고, 문서 목록***
- ④ 규슈대학장서인 DB: 자료 내력 이해****
- ⑤ 탄광화상 DB: 탄광자료 조사*****
- ⑥ 규슈대학학위논문서지 DB: 박사논문 조사*
- ⑦ 누에성장기록 DB: 누에 유전계통 조사**



그림 4. 귀중서화상 DB

3. 기록자료관

규슈대학부속도서관 부설기록자료관(이하 기록자료관)은 규슈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RARE.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rare2.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MANULIB.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STAMP.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MLBES1.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GAKUISYOSI.

** http://mars.lib.kyushu-u.ac.jp/infolib/meta_pub/G0000002KAIKO.

료(고문서나 고기록 등)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에는 (도서가 아닌) 기록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록자료관은 생소한 기관일 수 있다.* 우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료관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유사한 성격의 자료로는 규장각에서 소장 중인 고문서나 고문헌자료실에 소장 중인 오자와 유사쿠(小澤有作) 교수의 기증자료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서철 정도를 손꼽아 볼 수 있으나, 그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자료의 성격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정보자료관리부가 비교적 기록자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긴 하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근대 이전의 사료만을 담당하므로 전후(戰後) 자료의 수집에도 열심인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기록자료관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내에도 별도의 기록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기록관은 학교사나 학교행정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규슈대학 내에도 기록자료관과 별도의 학교사 기록만을 관리하는 대학본부 직속의 '대학문서관'이 존재한다. 현재 규슈대학의 대학문서관은 7개의 서고에 과거 제국대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종 대학의 발간물이나 행정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2005년 4월 1일 설립한 기록자료관은 현재 '산업경제자료부문', '규슈문화사부문', '법제자료부문', '고문서·고기록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자료관은 교내 각 기관에서 흩어져서 관리되어 오던 역사자료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예전 제국대학 시절 건물 2개 동을 서고로 활용하고 있다. 제국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수집해 온 자료의 양이 엄청나서, 현재 2개 동의 건물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기록물이 들어 있는 박스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1) 산업경제자료부문(産業經濟資料部門)

* 기록자료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나 매뉴스크립트(통칭하여 기록물)와 도서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서는 일부 필사본을 제외한다면 유일본이 존재하기 어렵다. 서양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라는 15세기에 발행된 구텐베르크의 42줄 성경(Gutenberg-Bibel)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50여 책이 남아 있다.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한 권만 발행하기란 매우 특수한 케이스이다. 출판물은 정부의 금서정책과 같은 인위적인 소각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유일본이란 존재할 수 없다. 지금껏 의도적인 수집 노력이 없었던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에 전 세계에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쇄된 책이 존재할 확률은 '0'에 가깝다. 이에 반해 문서나 매뉴스크립트는 애초에 다량의 복본이 존재할 수가 없다. 도서가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란 문서는 무언가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므로 계약 등의 증빙을 위해 문건을 2~3부 작성해 서로 나눠가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는다. 원고나 일기와 같은 매뉴스크립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MARC로 대표되는 기존의 도서관리 방법론만으로는 관리가 곤란하며,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기록'(records, archives)이라 한다.

** 이하 기록자료관 각 부문에 대한 소개는 九州大學附屬図書館附設記録資料館 編, 『記録資料館ニューズレター』, vol. 1, 2007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記録資料館NL1.pdf>)을 참조.

1979년 산업노동연구소의 자료를 인계받아 석탄연구자료센터가 설립됐다. 석탄연구자료센터는 당시 연이은 탄광 폐산으로 일실될 위기에 처한 석탄기업과 노동조합의 자료를 수집하는 센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규슈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은 석탄 관련 자료가 많이 일실되었다고 한다. 2005년에 산업노동연구소와 석탄연구자료센터에서 수집한 석탄산업, 일본경제사, 노동관계 자료와 도서를 계승하여 기록자료관이 설립됐다.

1) 조직 구성: 전임교원(3명), 겸임교원(1명), 직원(2명; 사무직 1명, 사서 1명)

2) 업무내용

① 석탄연구자료센터에서 담당해 온 산업경제에 관한 교육·연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와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부속도서관의 연구개발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디지털 아카이브즈 확충을 도모하고, 열람·공개를 통해 사회의 연구·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② 대학원 비교사회문화학부의 '산업자료정보강좌'를 개설 대학원 교육을 담당한다. 1차 자료를 취급하고 정보 해독능력을 갖춘 주제전문사서나 아키비스트 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연수회도 개최한다.

③ 연구기요인 『エネルギー史研究』와 자료집 『石炭研究資料叢書』를 간행한다.

3) 장서 구성

① 도서 약 4만 책, 자료 약 7만 점, 마이크로필름 약 1,500릴 등

② 주요 컬렉션

- 미쓰이(三池)노조기관지 「みいけ」 4795매: 전후 미쓰이·미이케(三池)노동조합의 기관지.

- 『筑豊石炭鉱業組合月報』 사진: 『筑豊石炭鉱業組合月報』에 게재된 77점의 탄광 사진

- 탄광찰(炭鉱札): 탄광경영자가 발행했던 사찰(私札)

- 탄광 관계 그림엽서: 2차대전 전후 탄광 풍경을 묘사한 그림엽서

- 해리슨(ハリソン)문고 242책: 영국 노동사가 로이드 해리슨 교수의 컬렉션

- 미쓰비시(三菱)·하시마(端島)자료 5,083책: 미쓰비시·하시마광업소 기증자료

- 미이케탄광노동조합자료 5,923책: 미이케탄광노동조합 기탁자료

- 아소가(麻生家)문서 15,967책: 근세후기부터 전후 폐산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간의 자료로 지쿠호(筑豊) 고산케(御三家) 중 하나인 아소가의 기업활동 분석 및 지쿠호 지역사나 석탄산업 발달사를 연구에 필수자료이다. 장부류(1897~1942년)와 서간 등이 대표적이며, 약 100평 정도의 공간을 차지한다. 아소가는 문제발언으로 유명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의

집안으로 규슈 지역 대표적인 석탄재벌이었다. 이 자료들은 현역 정치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일부는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할 정도로 비공개로 관리해오고 있다. 아소가에서 경영하던 탄광에는 한국인 노동자도 상당수가 강제 징용됐기 때문에 공개시 어느 정도의 파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③ 소장 자료는 대부분 『九州石炭鑛業史資料目錄』(전 12권)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④ 탄광화상 DB를 관리한다.*

(2) 규슈문화사자료부문(九州文化史資料部門)

규슈문화사자료부문은 1934년 규슈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설치된 규슈문화사연구소로 시작으로, 문학부부설 규슈문화사연구소, 대학원비교사회문화연구과 규슈문화사자료실을 거치면서 수집해온 역사자료를 이어받아 설립되었다. 규슈를 중심으로 서(西)일본 각지의 다이묘(大名)·쇼야(庄屋)문서, 상가(商家)문서 등을 소장중이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 조직 구성: 겸임교원(2명), 전임교원(1명)

2) 장서 구성

① 약 40만점의 고문서·고기록, 마이크로필름을 소장중이다. 대표적으로 나가누마(長沼)문고 등 27개의 고문서 컬렉션과 히로세가(廣瀬家)문서, 나베시마가(鍋島家)문서 등 마이크로필름이 있다.

② 다양한 중세자료,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번정(藩政)사료, 덴료(天領; 막부 직할지) 관계사료, 나가사키·류큐 관계사료 등 근세자료, 지가장(地価帳) 등 근대사료를 소장하고 있다.

③ 자치체사(自治体史) 컬렉션: 북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일본 전역을 포괄하는 서일본 지역의 대표적인 사료센터이다.

3) 주요 업무

① 사료의 수집, 정리, 보존, 공개가 주요 업무이다.

② 정리: 사료목록 23책을 발간한다.

③ 디지털화: 부속도서관 연구개발실, 총합연구박물관 등과 협력해 추진중이다.

- 주요 소장 사료 목록: <http://bunkashi.lit.kyushu-u.ac.jp/siryou.htm>

- 목록 DB: <http://bunkashi.lit.kyushu-u.ac.jp/search/index.html>

- 디지털 전시: <http://bunkashi.lit.kyushu-u.ac.jp/digital.html>

④ 보존방법개선: 고문서 진공보존 실시, 중성지포장, 보존상자 도입, 열화 필름 세정, 복사 필름 작성 등을 추진한다.

* 주 19를 참조.

- ⑤ 보존, 열람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존시스템을 구축한다.
- ⑥ 학외 연구자와의 협력: 규슈에 대한 종합적인 역사연구를 수행한다.
 - 『九州天領の研究』, 『佐賀藩の総合研究』, 『九州と南西諸島にかかわる關係史的研究』 등 발행
- ⑦ 주요 간행물
 -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1951년 창간, 현재 52호)
 - 『九州史料叢書』(1955~1967년) 41책
 - 『九州文化史研究所史料集』(1997~2005년) 8책
- ⑧ 인근 사료소장 기관과 제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교육, 생애교육에 공헌한다.

(3) 법제자료부문(法制資料部門)

법학연구원 법제사자료실에서 법학부 소장 도서 중 법제사 관련 고문서와 고도서 자료를 별치하기 위한 자료실을 1973년 설치했고, 현재 약 5,000점의 법제사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 경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분명치 않으나 대부분의 자료는 1930~1949년 사이 일본법제사 강좌를 담당해온 고(故) 카네다 헤이이치로(金田平一郎) 교수가 중심이 되어 수집한 자료이다. 법제사 자료는 1973년 이후에는 추가된 자료가 없어, 현재 재정비가 완료된 목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1) 조직 구성: 겸임교원(2인)이 담당한다.

2) 장서 구성

① 막부법령과 재판례, 다이묘(大名)법령과 재판례, 오사카마치부교쇼(大坂町奉行所) 기록 등 에도(江戸)시대 법제사 관련 고문서나 기록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후쿠오카번의 법제에 관한 자료가 많다. 이외에도 에도시대 북(北)규슈 지역의 쇼야문서, 메이지(明治)헌법성립사 관계 자료가 있다.

② 주요 컬렉션

- 화철(和綴) 고문서·도서자료 약 1,900점 (약 8,000책)
- 쇼야문서 등 가장(家藏) 고문서류 약 30건 (문서류 약 2,700점)
- 현·군사지(縣郡史誌) 등 활자도서자료 약 200점 (약 300책)
- 고찰(高札), 깃테(十手) 등 표본자료 약 30점

(4) 고문서·고기록부문(古文書・古記録部門)

1) 조직 구성: 인문과학연구원 일본사학강좌 소속 겸임교원(2인)이 담당한다.

2) 주요 업무

① 부속도서관연구개발실 조사·연구·개발활동 중 ‘귀중자료의 이미지 및 서지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고서·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이관, 고문서·고기록에 관한 구체적인 수집·조사·연구·정비·보존활동을 담당한다.

② 주로 교내 학내 고문서·고기록의 확인 작업을 담당한다.

③ 대상 자료

- 부속도서관 소장 ‘다케타(竹田)문고’, ‘쿠와키(桑木)문고’, 공학부 도서관 소장 ‘광산관계자료’, 롯폰마쓰 분관 소장 ‘히가키(檜垣)문고’, 문학부도서관 소장 자료 등

- 위에 언급한 기록자료관 세 부문에 소장중인 고문서·고기록 이외의 자료

4. 맺음말

규슈대학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부속도서관 또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장서 수에서는 대체로 규슈대학부속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내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2010년에는 특별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여전히 일본의 지방 국립대학 1년 자료구입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해외 교수 초빙에만 열을 올리기 보다는 도서관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연구개발실 운영은 우리 도서관도 벤치마킹할만한 지점일 것 같다. 도서관 내·외의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부설기록자료관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측과의 연락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서로의 도서관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고문헌자료실 근무자가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은 규슈대학 측에서 규슈대학의 고문헌 담당기관인 기록자료관을 방문 코스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고문헌은 고서를 의미하기는 하나 고문서와 고기록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기록자료관은 우리 도서관의 고문헌자료실과는 별개의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규슈대학은 별도의 고서 담당 부서를 운용하지는 않았다.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

다만 출장을 통해 그들이 수집해 놓은 엄청난 자료의 양에는 충분히 압도되었다. 서울대학

*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고문헌자료실은 대부분 고서만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고문헌자료실’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다. 특히 ‘rare books and archival collections’라는 영문 명칭은 굳이 번역한다면 ‘귀중서 및 기록물 보관소’에 해당하며, ‘rare books collections’는 현재의 귀중서고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archival collections’는 현재의 고문헌자료실과는 무관하다.

교중앙도서관은 예산상의 이유로 최신 자료의 구입 (혹은 임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고서나 고문헌 자료의 수집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재 소장중인 고전적도 기존에 경성제국대학으로부터 이관받은 장서나 일사, 가람 등 대학 초창기 국학 연구자의 개인문고를 제외하면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컬렉션이 변변치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규슈대학의 경우 다양한 양의 기록사료를 확보하였는데, 실제로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경쟁력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는 기록사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록은 유일본이라는 자료의 특성상 수집처를 방문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충분히 대학도서관의 랜드마크로 삼을만하다. 우리의 수집정책 또한 정리가 용이한 출판자료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그 외연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록으로는 규슈대학교부속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어떤 모습을 인상 깊게 보고 왔는지 규슈대학교부속도서관에서 발행한 『研究開發室年報』에 실린 「韓國にみる圖書館の新しい動き」라는 보고서의 서울대학교 부분만을 따로 정리해 보았다. 대체로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열거한 모든 요소를 그들이 벤치마킹해야할 요소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 기간 동안 호의를 베풀어준 규슈대학부속도서관 임직원 일동에게 감사를 표한다.

[부록] 규슈대학교부속도서관에서 본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1. 쾌적한 공간 지향

○ Learning Commons / Information Commons: 만화 같은 가벼운 자료들을 배열한 북카페 등을 설치했다.

○ 멀티미디어룸에서 최신 영화 DVD 감상이 가능하다.

2. 카운터

○ 도서관 입구가 4층에 있고, 입구를 들어서면 3개의 카운터가 있다. 이 외에도 각 자료실 별로 카운터가 존재한다.

- 이용자 전면에서 세세하게 직원을 배치한 것을 도서관이 그만큼 이용자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열람실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1층부터 3층까지 서가나 사무실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열람실을 중시한다.

- 규슈대학부속도서관의 열람실은 2천석(학생수 1만 8천명) 정도인 반면,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은 6천석(학생수 2만 3천명)이다.

○ 24시간 개방열람실, 좌석예약단말기, 사물함 월 단위 대여 등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제도이다.

○ 향후 일본도 학습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증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휴대전화 서비스

○ 모바일 ID 서비스

○ 세 가지 방법으로 입관이 가능한 게이트 리더기

○ 검색결과 전송 서비스

* 沙由香 外, 「韓國にみる圖書館の新しい動き」, 『九州大學附屬図書館研究開發室年報 2008/2009』, pp. 46~48를 참조.

** 인포데스크 폐지 이전의 풍경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은 이용자를 상대하는 창구가 너무 많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대출 창구 외에도, 고문헌자료실, 비도서자료실, 참고자료실보존서고, 연속간행물자료실보존서고, 단행본자료실보존서고 등 각기 다른 신청 창구를 갖는 현재의 다양한 폐가제 서고의 구분은 자료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향후에는 자료실은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카운터와 열람실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볼직하다.

5. 기타

- 다언어 지원이 가능한 자동대출기
- 서가에 없는 도서 요청 서비스
- 기업 광고가 부착된 PC 단말기. 현관의 기증자 명판
 - 기증·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 한편, 효도 켄시(兵藤健志) 씨는 자체 해외연수보고회에서 개인적으로 연수기간동안 김영애 선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규슈대학교부속도서관은 통상 2~3년 내에 인사이드가 이루어지는 반면 서울대는 국제교류업무를 15년 이상 한 분이 담당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해외 도서관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국제교류업무 담당 창구의 안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 兵藤健志, 「海外研修報告—ソウル大學校図書館」, 『九州大學附屬図書館研究開發室年報 2008/2009』, p. 45.